

# 태평양주보

##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e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Phone	850-849
발행호수	1670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9월 14일	Number	1670
	근요일	Date	Dec. 15, 1967: Fri.

### 우편요금 인상안 최종적으로 승인 연방정부종업원 증급안도 동시에 가결

(워싱턴 12월 12일 밤, 에이 피) 상원본회의는 12일, 중년 10월 1일도 돌아가 연방정부직원의 월급을 3단계에 걸쳐서 인상하고, 또 내년 1월 7일 이후 우편요금율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 존슨대통령의 서명을 얻기 위해 배아관에 송부하였다. 존슨대통령은 직서 답변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직원 3백만명의 월급인상은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질 것이다. 3단계의 월급인상에 필요한 지출은 27억불에 도달한다. 우편요금은 봉서가 5점으로부터 6점으로, 항공편이 8점으로부터 10점으로 인상되고, 이것에 의해 9억불의 증수가 예측되고 있다.

### 군인의 급여증액안, 국회 최종 승인

(워싱턴 12월 12일 밤, 에이 피) 하원본회의는 12일, 군인 10월 1일도 돌아가 3년만에 3단계에 걸쳐서 군인의 월급을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 존슨대통령의 서명을 얻기 위해 배아관으로 송부하였다. 군인 월급인상안은 하원총과안과 상원총과안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일 양원합의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타협안이 성립, 상원은 동일 이걸을 가결하고,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하원에 송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의 월급인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외에 군과 똑같은 월급체계를 채용하고 있는 해안경비대, 공중위생국, 육상국의 직원 합계 3백50만명에 적용되고, 이것에 필요한 지출은 제1년도에 6억3천3백만불에 도달한다. 법안에 의하면, 군인의 월급은 68, 69년도에도 국가공무원의 급제 인상과 마찬가지로 인상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969년의 지출은 27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의 인상에 의해서, 대장의 기본 월급은 2천1백달러 2천13달러, 2등병의 월급은 90달러로부터 95달러로 인상된다.

### 라스크 장관, 비에트남 문제 공개증언 거부

(워싱턴 12월 12일 밤, 에이 피) 라스크비국무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고, "비에트남정책에 대해서 공개증언하지 않겠다" 라고 다른 과장치 말하였다. 위원회는 비에트남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비에트남문제는 극히 개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석상에서만 오직 권제라고 생각한다. 이 라스크서장은, 지난 8일에 보낸 것으로, 11일 포아 민주당의 질문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또 상원외교위원회는, 라스크장관이 비에트남문제에서 공로 공개증언을 하도록 다시 요구하여 왔다.

(제 1 면)



# 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리사회 개막

(부트셀 12월 11일 밤, 에이 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각료리사회가 11일 부트셀에서 열려, 라스크 미국부 장관을 위시하여, 가맹 15개국의 외장, 참모총장등이 참석하였다. 이회의 의의의 초점은 핵병기 확산방지조약문제, 동조약의 조기체결을 희망하고있는 미국은, 동조약에 반대하고있는 서독, 이태리등의 설득에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서독은, 동조약에 대해서, 사찰조항을 제외하고 원속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고있는데, 서독과 이태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구주원자력공동체를 사찰하는것은 구주원자력공동체를 파괴하는것으로서, 동조약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권한을 주는것에 반대하고있다.

## 국제수지 개선에 협력, 존슨대통령 요청

(와싱톤 12월 11일 밤, 공중) 존슨대통령은 6일, 와싱톤에서 열린 경제심의회(대기업의 수뇌로 구성, 경제정책의 자문기관)의 만찬회에서 연설, 금추기는 결정적으로 패북하였다. 그러나, 이 처리에 기뻐할만으로는 안된다.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 한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하였다. 또 "미국은 금을 한 아운스에 35달러로 계속 팔것을 약속한다.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금의 최후의 한 아운스까지 그에 쓸것이다" 라고 밭전금준비제도의 의향을 처음으로 공식으로 명백히하였다. 국제수지개선의 구체안으로서, 존슨대통령은 특히 대외투자운자의 자주기제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호소하였는데, 기라의 면에서도 달러 방위강화는 꼭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파운드 가치저락의 고문으로부터, 드골대통령에 반발할만으로는 사례를 해결할수없고, 미국자신 국제수지개선을 추진시키는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날의 존슨연설은 이러한 결의를 반영한것이라고 할수있다. 정부는 이미 미국의 대외투자운자, 자주기제의 강화와 라후릿지상무장관외 관계각사와의 서함의 내용으로 명백히 되고있는데, 그외의 권중에는 (1) 수출축진 (2) 외국관광객의 초대 (3) 팬.아메리칸의 강화 등이 포함되였다고 본다. 또 일본, 서독등 동맹국에 대해서 (1) 가지고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지말라 (2) 증가채권을 산다 등의 요구를 내고있는데, 일본에의 수출공세도 한층 강해질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국제수지적자는, 비에트뎀전쟁악화 때문에, 작년의 2배에 가까운 25억달러에 도달할것으로 보이며 달러의 불안은 더 강하게하는 원인이 되어있다.

## 비에트뎀 정책 견지로 선거승리 획득

### 존슨대통령, 공화당을 비난

(와싱톤 12월 13일 밤, 공중) 존슨대통령은 12일, 마이아미.비.취에서 열리고있는 에이.에스. 4 씨.아이.오 넘차대회에서 연설, "현재의 비에트뎀정책을 어디까지나 견지함으로서 내년의 대선 명선거 재선을 쫓아간다." 라는 자세를 확실히 표시하였다. 존슨대통령의 연설은, 여태까지에 업든 신탄 구조로 "위대한 사회" 정책의 동력을 칭찬하고, 공화당을 "뒤를 돌아다보는 반대주의" 라고 비난한후, "미국이 레노프리티브의 나무는 모두 하노이가 격거버렸다. 미대통령으로서, 제일 간단하것은 전쟁을 당장 확대하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진실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을 계속하는 이외에는 없다. 반대하는자는 이에 대처할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 나는 세프츠사도, 심지어 생각에 너의안도, 하노이가 리해할때까지 어디까지나 이 중간정책을 계속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협정책을 범호하는 대역본공작이 해리스 조사의 존슨정책지지를 상충을 표시하고있듯이, 일단 성공을 얻은 결과, 존슨대통령이 전에서부터 생각하고있었다고 하는 현재의 토션 그데트의 "광행동파"를 내년의 대통령재선에의 기본태도로서 최극적으로 확신한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인다.



(제2면으로부터 계속)

당장 이근손대통령의 고사세가 크리스마스, 신년의 정경등 평화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가 주목되고있다. 전쟁확대후에는 평화공세라는 여러가지의 근손정책으로 보아도, 이 크리스마스, 연말에걸쳐서의 미국의 새로운 평화공세의 가능성도 있으나,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근손대통령의 자세는 비에트남전쟁의 무일이 내년의 선거시까지 계속할것을 확신했었다는 어두운 예측을 주는 편이 많다.

### 비에트남의 미군 병력 파는 만 5천명

(사이곤 12월 13일발, 에이 피) 미군사령부가 12월에 명백히안바에의하면, 미군은 다시 1여단을 비에트남에 증파, 비에트남주류미군병력을 13일현재 47만5천명으로 되였다. 이것은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최고시의 미군병력 47만2천8백명보다 더 많은것이다. 증파된 2여단 (약 7천명)은 제2차대전중 구라파에서 활약한 제101 공수사단에 속하고, 11월 17일에 개시된 비에트남 전쟁 최대의 공수작전에의해, 미본토로부터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 운송 되였다. 동공수작전에의해, 또 1여단이 12월 29일까지에 파견되기로 되어있다. 제101공수사단장 발산키소장은 13일, 벤오아공군 기지에 도착하였다. 동공수작전은 12월 29일까지에, 켈러키주 덴볼에있는 제101공수사단기지로 부터 9천7백83마일 더리진 비에트남에 373편을 날르고, 합계병력 1만3백56명, 차량 5천1백18승 에리플러 37기 외에 대포, 탄약등을 운반하기로 되어있다. 제101공수사단의 제1여단은 이미 1965년 7월 비에트남에 파견되고있는데, 이번 증파된 2여단, 연말까지에 도착하는 1여단도 잠시 현지에서 훈련을 받은후, 제1여단에 합류할것으로 그후에 전후에 참가한다. 미군사령부는 12일, 미육군 제25사단이 6일정으로부터 사이곤 북동 28마일의 수절지대에서 적을 수색.파괴작전을 전개, 이미 비에트남 52명을 죽였것을 확신했게하였다. 동중전에서는 비비 52중폭격기가 공산군이 숨어 있는 중부산악지대까지에 덩푼격을 가하였다. 북비에트남상공은 우기때문에 악천후가 계속하고 12일의 출력은 88회단으로, 하노이.하이퐁지구에는 접근하지못하였다.

### 사회보장 최종안 하원 가결

(워싱턴 12월 13일발, 에이 피) 하원은 13일, 집의 산원과의 사이에 합의된 본 신사회보장법안을 찬성 388, 반대 3으로 가결, 상원에 송부하였다. 상원은 일르법, 규명일중에, 늦어도 주말까지 동법안을 가결하고, 존슨대통령의 서명을 업기 위해 백아관에 송부할것으로 보인다. 신사회보장법안은, 하원안과 상원안사이에 차이가있었기때문에, 양원협의 회가 열려, 지난 7일 최종안이 확정된것이다. 최종안에의하면, 사회보장비는 최저 13% 인상되며, 최저보장비는 월액 44달러로부터 55달러, 최고액은 142달러로부터 160달러 50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한편, 사회보장세는 1968년으로부터 최고 52달러 80센트로 인상되며 또 장래 더 인상될것으로 되어있다.

### 대서양상비 할대 발족 결정

(부트셀 13일발, 공등) 15일부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리사회를 앞에두고, 12일 부트셀에서 열린 불람서를 제의한 동맹 14개국국방장관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신정략으로서 유난대응결탁의 채용을 전식으로 승인, 그의 하나로써 내년초에 대서양상비해군을 발족시킬것을 결정하였다. 국방장관회의는 또 서독주류미군 (22만명), 동영국군 (5만5천명)을 각각 3만8천5백명으로 삭감할것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켈네디정권이래 종래의 대당 보복결탁포기, 령집정으로부터 유력전에 이르는 모든 사례에 대처할수있는 새로운 군사정책으로서 맥나메타미 국방장관이 정밀하게 논의한 유난대응결탁을 채용하고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로서는 정치적인 리유로 소련의 공격에대해서는 직시 핵병기로 보복한다는 결탁을 공식으로는 법치안코잇었다.



(제3편으로부터 계속)

유난대응전략은 전에 핵공격이 상호의 자신행위를 의미하는 사태로되어있는 결과 나온것이며, 미국이 이것을 채용하고있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식 전략결정은 현실의 사태의 인가에 지나지 않는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대법원에 의하면, 대서양상비해군은 당초 미, 양, 캐나다, 오라다동의 제국이 공출하는 최저 (최)의 구축함으로 68년 1월에 발족, 5개년계획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고 한다.

## 오기나와 반환은 현재로는 불가능

(와싱톤 12월 13일 밤, 공동) 미하원의외국인 아세아 태평양분과위원회외 자브룩키 위원장은 13일, 와싱톤 일. 미협회주최의 주지사의 연설에서, 동분과위원회는 내년부터 "태평양시대의 미외교정책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는 정권화"를 언다고 발표하였다. 이청군회의 중심의제는 "비에트남전쟁후의 태평양지역에잇서서의 미.일 협력"이며, 일본의 방위문제, 오기나와 반환문제도 크게 취급 될것이다. 일본국회에서 방위문제가 급우 더 심해지는데 미의 회도 이에 대응하듯이 아세아의 방위 문제를 취급하는것이다. 자브룩키 위원장은 이 연설에서 (1) 오기나와의 반환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2) 비에트남전쟁후의 미래태평양정책의 하나로서 오기나와 반환문제를 검토해야한다.

(3) 일본과 아세아의 방위문제는 연결되어있으며, 사.도수상은 이를 이해하고있다. 등의 접해를 말하였는데, 이의점은 청문회에서도 반영 될것이다. 협설의 오지는 다음과 같다.

1. 지금 구라파만을 중요시하는 기대는 지났다. 미국이 아세아와 상호협력할수있는 열쇠는 일본이 가지고있다.

1. 미국의 아세아정책은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는것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일정책을 더 넓은 아세아감을 반영하게 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일본과 오기나와의 재통일하려는 의도는 잘알고있으며, 오기나와의 조기한림은 희망하고있는데, 완전한 반환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1. 그러나 나는 비에트남전쟁은 영구히 계속 되는것이 아니라고 확언하고있다. 미국의 태평양 시대에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비에트남전쟁후의 정세를 검토해야한다. 이러한 검토는 오기나와 반환에 새로운 관점을 주어야한다. 그러나 오기나와 반환문제는 태평양에잇서서의 미국의 전략적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와 띠어트러서 생각할수는 없다.

## 안호상 박사 기행 예성

지난달 하와이를 지나가실 안호상박사는 현재 서독각지를 여행중이신데, 목적함바 제사무를 마치시고 미주를 다녀 환국하시는 기로에 오는 22일경에 본함에 도착하여 수일간 체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항에서 체류중 하와의 한성유지와 만나서 간단한 담화회라도 가자고 싶으신 의향을 전해 왔는데, 프항에서 이부의 요청대로 간단한 담화회를 계획할것이라고 한다. 이 담화회는 한인 연합회나 또는 유지들의 모임으로 개최될것인데, 확실한 일자와 회집장소는 미정이라고 하며, 안호상박사가 도착하신 후에 연락이 있을것이라고 한다.

우리연합이 잘 아는 본항의 김주수박사는 수장권부터 한편 눈이 조금 희미하여졌는데, 한편 눈이 잘보이는코도 무섭히 지내왔으나, 지난날 부터 심박한 눈이 희미하게보이는코도 직시 의사의 진찰 경시를 받고, 11일 화일주의 일요일에 권명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고 한다. 천운신조도 등 여사의 병이 신속히 완쾌하시기를 기원하시기를 일방 지지는 기도하고있다.

오랑인국총영사관에서는 금번 한국정부로부터 한국외교부로부터 공관에 보편중인데, 한인연합회에서는 본관사업의 하나로써 총영사관과 협의후, 오는 1월 12일(금요일) 저녁 7시부터 총영사관에서 영회를 상연, 일반관람객이 보여드릴것이라고 하며, 한인회는 누구나 이 기회를 노치지안코 이 재미진 집회한 이국영회를 와서 보시라고 기대하고있다고 한다.



